

# 진주 미술사 정립 첫발 '회화소록'전

김종현 기자 | 승인 2022.06.23

박생광·이성자 등 대표작 37점  
진주시립이성자미술관서 전시  
지역 미술 연표·아카이브전도  
28일 개막 내달 9일까지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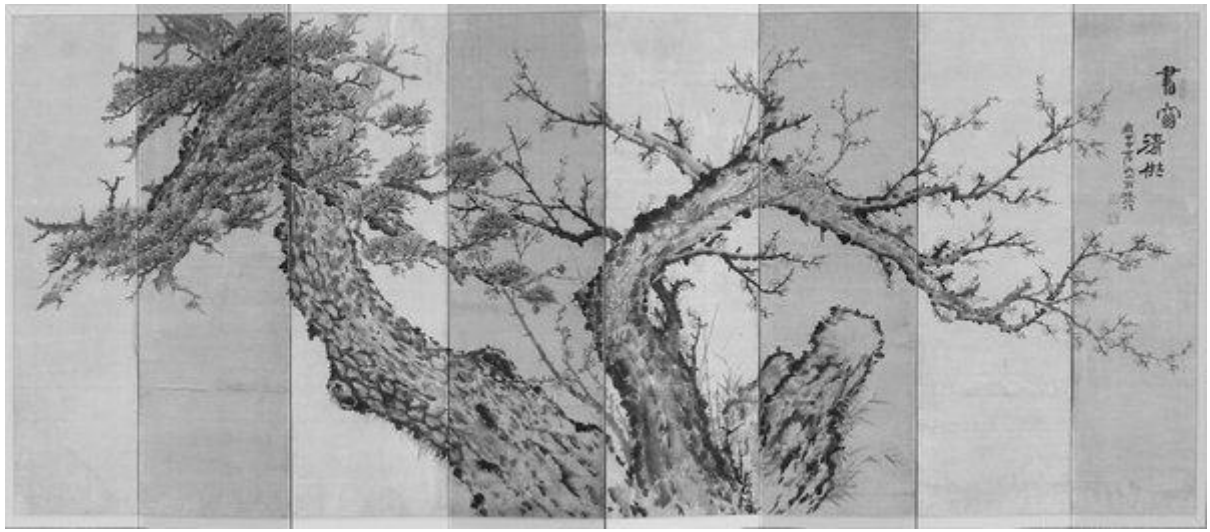
진주시와 사단법인 진주목문화사랑방이 진주 미술사 정립을 위한 첫 번째 전시 '회화소록(繪畵小錄)'을 연다.

오는 28일부터 7월 9일까지 진주시립이성자미술관에서 열리는 전시는 해방 전후 진주화단을 형성하고 지역 미술발전에 이바지한 작가 13명을 선정, 대표작 37점을 모았다.

바로 박생광·이성자·황영두·정대기·성재휴·성찰수·안재덕·정문현·황현룡·강신호·허민·홍영표·조영제 등이다.

전시는 크게 '서양화의 유입과 지역 화단의 형성', '단체 설립과 화단의 정착', '영남예술제', '중앙 화단과 교류와 해외 현대미술의 수용'으로 나뉜다. 진주 미술 연표와 관련 아카이브 자료도 함께 전시한다.

진주는 조선시대 시·서·화 삼절(三絶)이라 불렸던 인재 강희안(1417~1464)을 비롯해 당대 뛰어난 문인가들을 배출하며 문화적 위상이 높았다. 일제강점기에도 경남도에서 가장 먼저 서양화가 소개되는 등 문화예술 중심지로서 명맥을 유지했으며, 해방 후에는 다양한 문화예술단체 설립과 지방문화예술행사의 효시가 된 '영남예술제'가 개최되면서 일찍이 지역화단이 자리를 잡았다.



▲ 황영두 작 '매화'. /진주시립이성자미술관

또 한국 채색화의 지평을 넓힌 박생광(1904~1985)의 고향이자 최초의 여성 추상화가 이성자(1918~2009)가 자신의 작품세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학창시절을 보낸 곳으로서 근현대미술사에서도 중요한 곳이다.

하지만 그동안 한국미술 역사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기술되면서 지역미술은 몇몇 대표작가의 활동이 기록되었을 뿐 미술사적 연구와 조명이 부족했다.

2004년 경남도립미술관이 개관되면서 권역별로 지역미술사를 정리하는 전시가 개최된 바 있었으나, 애초 계획과 달리 지속해서 추진되지 않았으며 진주를 포함한 서부권에 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이번 전시를 기획한 진주목사랑방 관계자는 "지역작가 조명 차원을 넘어 이들의 활동을 미술사적 맥락에서 확인하고, 체계적인 연구와 기록으로 화단의 형성과 전개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전시를 시작으로 진주미술의 역사에 관한 연구가 더 심화하고 확장할 수 있길 기대하고, 더불어 기존 미술사의 서술방식과 지역미술을 바라보는 시각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종현 기자 kimjh@idomin.com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종현 기자